

# 대구장 가는 버스

강신욱

멘토 김성희

## 등장인물

군위 여 90대 초반. 10대 중반에 여기로 시집을 왔다.

영천 여 80대 후반. 20대 초반 영천에서 여기로 시집을 왔다. 남편은 중풍에 걸려 고생하다 10년 전 저 세상으로 갔다. 4남매를 두었으나, 모두 대구, 부산에 산다.

안강 여 70대 후반. 20대 초반 안강에서 여기로 시집을 왔다. 남편을 일찍 잃었다. 자식이 있었으나, 병으로 지금은 아무도 없다. 다리가 아파 유모차를 끌고 다닌다.

**장소** 한적한 시골 마을.

**무대** 마을 입구에 있는 종류가 다른 일인용 소파가 세 개있다. 그 뒤에는 평평한 바위가 있다. 소파는 매우 낡아 보이지만 매일 청소한 듯 매우 청결하다. 소파 오른쪽에 은행나무가 바로 붙어 있다. 무대 왼쪽 끝에 버스정류장 표시가 있다.

새벽. 귀뚜라미 소리가 간간히 들린다. 군위는 은행나무 옆의 바위 위에 앉아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집을 그저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 그러곤 바로 익숙하게 소파를 닦는다. 걸레를 정성스럽게 은행나무에 걸어둔다. 주위에 있는 물건들도 가지런히 정리를 한다. 소파 가운데 앉아 옷매무새를 다듬는다. 소리도 없이 버스는 소파 바로 앞에 멈춘다(무대 오른쪽에서 파란색 조명이 들어온다). 군위는 자신이 하고 있는 머리핀을 나무에 꽂는다. 군위는 행복한 웃음을 띄며 버스에 오른다. 버스는 곧 출발을 한다.  
안전.

사이

무대 서서히 밝아진다.  
머리핀과 걸레는 나무化 되어있다.

영천은 소파에 있는 걸레를 이리저리 살펴본다.

**안강** (유모차를 끌고 오며) 새벽바람은 뭐같이 불디만, 아침부터 와이래 덥노. 뭘할라꼬?

**영천** 바뀌야겠다.

**안강** (앉으며) 그리 닦으니 안냔으요

**영천** (걸레질 하며) 니 낼 올 때 예쁜거 하나 들고 온나. 니가 들고 올 차례다.

**안강** 예쁜거... 분홍색 뽀스? (사이) 거기 잘 닦기긴 하더라.

**영천** (계속 걸레질하며) 그거는 니가쓰고... 찌린내 나는거 말고, 쓰던거 가지고 온나

**안강** 참말로 걸레가 걸레지 뭐그리 까다롭노... 알겠다.

**영천** (안강을 흘겨보며) 분홍색? 니 그거 전에 그거 아이가? 빨간색?

**안강** 아따 날카롭네. 빨간색 그거 계속 빨다 보이 분홍색이 되는기라.

**영천** 아직도 못 잊었나.

**안강** 뭐라카노. 아까버서 계속쓰는기지.

**영천** 가가 춘..... 머꼬 니 어릴 적 동무...

**안강** (걸레를 뺏으며) 춘삼이

**영천** 가도 참 희안하다. 예쁜 선물이 그리 많은데... 뽀스가 뭐고

**안강** 내가 사돌라 캬요. 뭐 가지고 싶냐 묻길래. 저승갈 때 예쁜거,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 예쁜거 카니까. 그걸 들고 오는기라. 지가 카더라고 사람은 뽀스가 중요하다고. 사람 염질할 때 (작은 목소리로) 구멍난거 있으마, 염쟁이가 속으로 욕한다고...

**영천** 맞나. (웃으며) 그라마 내도 예쁜거 하나 사도... 춘삼이... 한 십년 된나

**안강** 기억도 안나요. 그거 하나 주고... (작은 목소리로) 다시 온다 카디

**영천** 둘이 보기 좋았다.

**안강** 망측하구로. 죽은 서방이 놀라가꼬 찾아오마 어짜노.

**영천** 그러던가 말던가... 욕했뿌라, (하늘을 보며) 지혼자 잘 놀다 가이, 내 혼자 남아서 니 뒗치닥꺼리 한다고

**안강** 이제는 욕하는 것도 지겹다.

**영천** (웃으며 걸레질 한다) 나도 그렇다.

안강 손목 아프다 카면서

영천 (걸레를 보며) 이게 낡으이 더 안된다.

안강 (소파를 만지며) 깨끗하구마 뭐할라꼬

영천 니 눈엔 안 보이도 낸 눈엔 다 보인다.

안강 좋겠다.

영천 (한참을 걸레질 하다가) 마실 앞에 아스팔트가 깔리  
니...

안강 또 시작이구마

영천 ...

안강 여러모로 좋다.

영천 사방이 먼가 흰해 지는 것 같고

안강 먼지는 들나제, 버스는 들나제

영천 ...

안강 (영천 눈치를 보며) 애들 오기도 습제

영천 흰해진 것 같은데... (앞산과 뒤쪽의 마을을 보며) 여  
하고 저하고 경계가 생기는 것 같아 답답다. 여 소파가  
이 마실 끝 같고,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고, 못 갈  
것 같고...

안강 뭐가 끝이라. 버스도 가고 버스도 오고... (영천의 걸  
레를 소파에 놓으며) 꼭 내가 나서야 한다 아이가. 형  
님 내 잘 보소.

영천 뭘 보라카노

안강은 영천을 한 참을 보다가 영천 팔에 끼워져 있는 염주를 빼  
낸다. 그러곤 자신의 유모차를 끌고 건너편으로 달려간다.

영천 뭐하노

안강 고시래

영천 뭐라카노

안강 (염주를 멀리 던지며) 고시래 고시래

영천 (화내며) 야가 뭐하는기고. 그기 뭔지 알고 카나

안강 (되돌아와서) 잘 알 제. 형님이 하루정일토록 돌리는거  
아이가. 그래가 내가 고시래 했다아이가.

영천 니 고시래가 뭔지는 알고 카나

안강 잘 알제. 내하고 땅하고 나눈는거 아이가. 형님이 하도  
(앞산을 가리키며) 저 짜가 맴에서 멀어진다 카이 내가  
고시래 한거 아이가. 인자는 (앞산을 가리키며) 저 짜  
저분이 돌리라꼬.

영천 (안강을 흘겨보지만 그리 싫지만은 안은 듯) 못하는 소  
리가 없다. (유모차를 보며) 니 그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 인제 부터 니 차. 내가 타고 땡겨야 겠다.

사이

안강 형님 맴이 그래도

영천 내 맴이?

안강 안카요 형님. 개똥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때 말이  
요. 그 때가 아닌가...

영천 그 때? 뭔 말이 하고 싶어 하노?

안강 묘소가 저 앞 언덕빼기에 있다고... 아스팔트 깔리면,  
멀어진다고, (눈치보며) 다들 좋아하는 아스팔트 깐다  
고 했을 때 말이요, 혼자서만... 우리한테만 얼마나 궁

시렁궁시렁 했어요?

영천 옛날 일이다.

안강 참말로 오늘 따라 왜 이리 뽀뽀 닦는지 모르겠네...  
와?

영천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아스팔트 깔리니..... 애들도 나가  
가기 쉽게... 글고 개똥이가 뭐고 얼마 안 있음 가도  
환갑이다.

안강 개똥이 보고 개똥이 카는데, 가가 개 똥을 얼마나 좋아  
했노. 지금 생각해 봐도 우습다. 가가 벌써 그리 된  
나? 아 들 크는거 한순간이라 카디 그기 벌써 그런나.  
부산서 큰 학교, 큰 선생님 한다 안켰나?

영천 큰 학교 큰 선생님이 아이고... 대학교 교수님 아이가?

안강 그기 그기지. 하도 안본지 오래되가... (영천의 눈치를  
살피며) 둘째도 선생한다 안켰...

영천 군위형님은 언제 갔는데 아직이고

영천 걸레질한다.

안강 (걸레를 뺏으며) 이리 쥐 바라. 손목 아프다 카면서.  
근데 아스팔트가 좋긴 좋다. 의자에 먼지도 덜 묻고

영천 (걸레를 뺏으며) 지대로 해봐라. 아파도 내가 해야지.  
영...

안강 근데 형님. 군위형님은 언제 온다 카드노

영천 언제?

안강 그래 언제

영천 군위형님이 말을 했나...

안강 (영천을 보며) ...

영천 (안강을 보며) ...

안강 했는거 같기도 하고 안했는거 같기도 하고

영천 언제갔드노

안강 어딜 말이고

영천 버스타고 거기

안강 거가 어디고

영천 모르겠다. 어디 간다고 말을 했나...안했나

안강 그러고 보이 했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영천 참말로 희안하다

안강 군위형님이 원래 말이 없다아이가

영천 버스타다는 말은 기억한다.

안강 나도 다른거는 몰라도 그거는 알고 있다.

영천 알고 있으면, 몇 번 탔다 카드노?

안강 내 도... 같이 들었으면서... 여튼 한 달하고 보름쯤 후  
에 온다 안 됐나

영천 (안강을 한참 바라보다) 같이 들었나...

안강 걸레 봐라 너덜너덜 한 게 오래썩었다.

영천 오래썩었다.

안강 늙었다.

영천 (걸레를 보며) 맞다. 내처럼...

안강 걸레를 들어보며

안강 기억나요?

영천 뭐?



**안강** (뒷쪽 바위를 보며) 내하고 형님들 하고...

**영천** 참 요상한 것이... 사는데 힘들 때마다 걸레질만하면,  
(가슴을 가리키며) 단단하이 막힌게 확 내려간다 아이  
가. 희안하다.

**안강** 맞다. 글캐도 걸레가 너덜너덜 하이 내 갈기도 하면서  
도... 힘들게 날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습우면서도  
슬픈게 아침묵고 슬슬 마실 나와보마. 항상 군위 형님  
이 여서 걸레질하고 있었다 아이가. 내도 가만히 앉아  
같이 걸레질 하고 있으마 (영천의 손을 잡으며) 언제  
왔는가 모르게 형님도 슬며시 옆에 앉아 걸레질 하고  
있고...

**영천** 요새는 니가 더 극성으로 닦는거 같네

**안강** 형님들 없어지면 어쩌나하고 내 매일 여로 걸레질하러  
온다 아니요

**영천** 못하는 소리가 없다. (사이) 내 여로 시집왔을 때 저  
짜 산 넘어 안 왔나. 시어마씨 등쌀에... 거 보다 더  
무서븐게 시누이 등쌀이다. 한 날은 도망갈라고 집에서  
길따라 여까지 왔는데, 누가 (소파 뒤 바위를 보며) 저  
를 열심히 걸레질 하는기라.

**안강** 맞다. 의자 생기기 전에는 저 짝에 앉아 이야기도 나  
누고 걸레질도 했는데... (소파를 만지며) 언제부터 이  
게 생겨 저를 안간다.

**영천** 뭐할라고 저를 가노. 지금이 좋지 저만 생각하면... 세  
월 빠르다...언제 저를 벗어나나 싶지만... 죽을 때가  
다 대이 벗어난나...

**안강** (영천의 말을 돌리 듯) 여자는 차분데 앉으면 안된다.

돌뼈가 가을부터 얼마나 차가버 켜노.

**영천** 여자가 아를 낳수 있어야 여자지. 할매가 여자가

**안강** 할매는 여자가 아니고 뭐꼬

**영천** 할매는 그냥 사람이다.

**안강** 그럼 할배들하고 똑 같이 서서싸지 와 앉아싸노

**영천** 오줌빨 힘이 없어가 다리에 질질싸는데 어째 서서싸노

**안강** 글게. 그라이 할매는 할배랑 다르다.

**영천** (웃으며) 니 말이 맞다. 할매도 여자다.

웃는다. 사이

**안강** 각설하고... 그래. 아까... 도망가다가... 걸레질하고

**영천** (웃으며) 도망치는거 들킨 것 같아. 얼굴이 빨가이 있는데, 거가 나를 가만히 보디, 자기 걸레를 주는기라. 나도 모르게 돌뼈를 닦았제. 그라이 맘이 편안해 지고. 용기도 생기고, 다시 길따라 올라갔다 아이가.

**안강** 맞나. (영천을 보며) 그라이 내한테도 그랬나

**영천** 그라이

**안강** 우습다. 언젠가부터 걸레질 하는 거만 봐도. 서로서로 맘을 다 알았다 아이가

**영천** 요새는 (걸레를 보며) 이거 줄 사람도 없다.

**안강** (걸레를 들며) 형님, 담에 아 들 명절날 오마. 찌짐대 신 이 걸레 싸주소. 이게 내 맘이고 너거들 이걸로 키워다고, 꼭 싸주소.

**영천** 버스온다

버스 정차 했다가 출발한다.(버스 소리. 버스정류장에 밝은 조명 들어왔다. 꺼진다.)

안강 아이고야 뭘놈에 사람들이 이래 많이 탔노

영천 많드나

안강 못봤나 두 손 한가득이다.

영천 오늘이 장날이가

안강 그런가보네...

영천 너거 시동생도 전에 간다카디 갔드나

안강 대구장에 갔을끼다

영천 좋은데 갔네

사이. 구멍가게 어두운 불이 켜진다.

영천 저 봐라

안강 어데

영천 저기 개밥바라기

안강 배고프다. 밥먹고 가소.

영천 웬일이고

안강 김치가 맛이 들었다.

영천 언제 했노

안강 민들레, 이기 씹쓸한게 맛나더라

영천 좋다카겠다.

안강 누가

영천 군위 형님 말이다. 얼마나 좋아했노?

안강 안캐도 생각이 나긴나더라. 얼마나 좋아했노. 맛들었

다. 안 먹고 갈라요?

**영천** 막걸리 있나?

**안강** (혼자말) 이 아줌마가 나이가 들더이 술만 늘었네.

**영천** 들었다. 언제적인데, 아직도 아줌마고?

**안강** 그럼 뭐라카노. 늙어 빠진 할망구라 카까?

**영천** (웃으며) 그래도 아줌마가 낫다. 얼마나 맛들었는지 가 보까. 찌집도 굽자.

**안강** 결국 갈꺼면서 뭘 그래 궁시렁궁시렁하노... (옆가게를 보며) 가면서 춘자네 가가 막걸리나 받아 가자.

**영천** 김치는 니가 내보다 낫다.

영천, 안강 구멍가게로 들어간다.

서서히 암전.

**안강** (소리) 춘자야. 내 왔다. 이 마실 이쁜이들 왔다. 형님 오늘 내 차에 막걸리 한가득 실어가자.

과거.

바위와 그 주변 조명 서서히 밝아진다. 군위, 영천 바위를 닦고 있다. 안강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울고 있다. 서로 서로 눈이 맞 주친다.

**안강** (조용하게) 이 동네도 사람이 있었네...

**영천** (군위를 보며) 형님. 내도 저랬어요?

**군위** (걸레질 하며) 맞다.

**영천** 형님도 저랬어요?

군위 하므.

영천 (안강에게) 얼마전에 잔치가 있었다 카디. 니가?

안강 (끄덕인다.) 네...

영천 내는 영천에서 왔고, 형님은 군위서 왔다. 니는?

안강 안강서 왔어요.

영천 (걸레를 주며) 자

안강은 얼떨결에 걸레질 한다. 셋은 한참 걸레질 한다.

영천 니나 우리나라 똑같다.

안강 (일어서며) 또 와도 됩니까. 두 분들 여기 계속 계십니까

영천 (웃으며) 우리도 집있다. 우리 이제 한동네 동무다. 여기가 우리 모임방이다. 울고 싶을 때 온다. 누구라도 있겠지

군위 (안강을 보며) 곱다. 곱은데 와이래 우노. 또 온나.

안강 (미소지으며) 네... 형님들

영천 (걸레를 들며) 니꺼 들고 온나.

안강 (당황한 듯) ...네?...네...

안강은 꾸벅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영천 (군위를 보며) 군위, 영천, 안강

군위 (웃으며) 군위, 영천, 안강

서서히 암전.

과거.

바위와 그 주변 무대 밝아진다. 군위, 영천, 안강 큰 바위에 앉아

**안강** (웃으며) 좋다.

**영천** 마실 남정내들 상가집에 갔다는데, 뭐가 좋아 그리 웃노. 영구네 할배 (하늘을 가리키며) 저 쪽에 가시다 니 웃음 소리듣고 여 찾아와 노발대발 하겠다.

**안강** 그게 좋다는게 아이고... 형님들하고 여기 이려고 있는게 좋다고요. 카고 호상이라 카드만 뭐가 슬프노 안그렇소 형님(군위에게 동의를 구한다.)

**군위** 호상... 그리 슬플 것도 없겠다. 가는 어른이야 한세상 잘살고 가는거 뭐그리 아쉽겠노. 남아 있는 사람만 슬픈게지.

**안강** 저쪽은 울고, 여쪽은 웃고

**영천** 니는 이리 있는게 그리 좋나

**안강** 좋지요. (군위의 무릎베개를 하며) 형님들 하고 있으이 좋지요.

**영천** (걸레질 하며) 그케도 죽는거는 다 슬픈기다.

**안강** 누가 안 슬프데요. 지금이 좋다는기지. 그라고 걸레 좀 치우소. 오늘은 내가 궁구이로 다 닦았으이.

셋은 눕는다. 그러곤 서로 손을 잡는다.

**안강** 풀벌레 소리 좋다.

사이

**군위** (천천히 일어서며) 난 죽는게 무섭다.

영천, 안강 흠짓 놀라며

**안강** 우리가 있는데, 뭐가 무섭노

**영천** 형님...

사이

**군위** (안강을 보며) 니가 호상호상 카면서, 춤출까바 무섭다.

**안강** 설마... 춤은 안추께요. (자신의 머리핀을 군위에게 달아주며) 이거 보고 무서워 하지마소.

**영천** (군위의 손을 잡으며) 곱다.

**군위** 꾸굴꾸굴한게 뭐가 곱노. 안강이 곱지.

**영천** (군위에게) 형님이 더 곱아요

**안강** (군위에게) 우리 중에 형님이 제일 곱고, 답이 내고, 답이 영천이다.

**영천** (웃으며) 니도 서방 뒷바라지 십 여년 해봐라. 이리 안되나.

셋 웃는다. 군위를 시작으로 다들 일어서서 노래하며 춤을 춘다.

**안강** 저는 울고 여는 웃고

일동 저는 울고 여는 웃고  
영천 저도 웃고 여도 웃고  
일동 저도 웃고 여도 웃고  
군위 가신 님아 어서 가소  
일동 가신 님아 어서 가소  
군위 가거 들랑 걱정 말고  
일동 가거 들랑 걱정 말고  
군위 달님 보며 별님 보며  
일동 달님 보며 별님 보며  
군위 가신 님들 기억 하지  
일동 가신 님들 기억 하지

서서히 암전.

일동 저는 울고 여는 웃고  
저는 울고 여는 웃고  
군위 저도 웃고 여도 웃고  
저도 웃고 여도 웃고

현재.

무대 밝아진다. 영천, 안강 소파에 앉아서

영천 버스 올 시간 안됐나?

안강 시간은 아나?

영천 아침묵고 여 안자 있으나 온다 했는데

안강 요새는 입맛이 없어 가꼬, 오늘 아침은 안 묵었는데...



그래가 안오나

영천 그라마 오늘은 안오는가

안강 그랄란가

영천 온다. 군위가 온다 켜다

안강 직접들었나

영천 니도 있었다 그 자리에

안강 언제

영천 언제고... 떡 먹은날

안강 (멍한 듯) 무슨 떡? 수제비

영천 그거는 저번이고, 수제비가 아이고 떡

안강 그라마 그기 언제고

영천 언제...

안강 요새는 떡 먹을 날이 없어가

영천 떡 먹으마 기억날란가

안강 무슨 떡

영천 (소파 뒤로가며) 소변마렵다

안강 버스타고 군위가 오는거 맞나. (영천을 보며) 소리 좋다. 벌레 안 꼬이게 잘 처리하소. 사람이 걸으로 볼 때는 바르게 보이는데. 오줌 누는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검은 머리도 새로 나는 것 같고...

영천 (소변보면서) 버스타고 갔으니, 버스타고 오겠지.

안강 형님 빨리 끝내소. 형님 소리 들으니 나도 마렵구만.

영천 나오고, 안강 소파 뒤에가 소변을 본다.

안강 버스 오는가 잘 봐요. 딴생각 하지 말고. 내 오줌 놀

때 오면 버스 꼭 잡고 있어요.

버스 천천히 지나간다(무대 조금 어두워 지며, 오른쪽에서 파란색 조명 들어온다). 영천은 그저 손짓만 한다. (파란색 조명이 꺼지며, 무대 밝아진다)

**안강** (일어서며) 누구 땀에 땅이 질퍽해져가고, 힘들었네.

**영천** 방금 버스 지나갔구마...

**안강** (이리저러 보며) 뭐라꾸요. 잡지 왜 안잡노. 또 땀 생 각 한 거 아이가

**영천** 그게 아이고 그냥 천천히 지나가더라고...

**안강** 그게 그 말이지... 형님은 내가 없으면 안되는구마. 형 님이 적극적으로 잡아야지. 답답하구로. 이장이 뭐라 켜어요. 앉아만있으면, 버스기사가 다른 거 기다린다 생각하고 그냥 간다고, 켜어요 안켜어요. 거 참 굼뜨구 로. 손도 흔들고...

안강이 영천의 손을 잡고 흔든다.

**안강** 근데 희안하네. 와 그냥가노.

**영천** (멍하게) 그래 희안하네, 와 그냥가노. 다 서는데 이거 는 와 그냥 지나가노. 혹시 저 옆에 정류장서 손을 흔 들어야 되는가

**안강** 그런가... 군위형님이 여 있으면, 선다 켜는데...

**영천** (안강이 잡은 손을 빼며) 참말고 상그럽다. 그냥 지나 갈라 카마. 와 천천히 지나가노

안강 그래 갈라 카마 빨리가지 천천히는 왜 지나가노  
영천 담에 올란가... 할매 하나밖에 없더구만  
안강 할매가 있었나.  
영천 있었다. 우리를 빠이 쳐다보대  
안강 그라마 잡아야지 그냥 앉아 있으이 그냥 가지...

사이

영천 우리를 빠이 보며 웃더라고  
안강 누가  
영천 그 할매가...  
안강 웃더라고? (웃으며) 우습다.  
영천 뭐가  
안강 우릴 뭐라고 생각했겠노  
영천 난 또 뭐라고. 버스 타고 가다가 밖에 보이 한 할매는  
오줌누고 있고, 한 할매는 멍하이... 가는 길 조심해서  
잘 가라고.... 그래 알겠지.  
안강 우습다  
영천 우수한 것도 많다.  
안강 담에 올 때는 적극적으로 (손을 흔들며) 해보소  
영천 (멍하게) 그라마 세워 줄란가...

서서히 암전.

현재.

무대 밝아진다. 영천, 안강 파마머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있다.

안강 (거울을 보며) 어때요.

영천 뭐가 어땠노

안강 염색한거

영천 십년은 젊어 빈다. 시집가도 되겠다

안강 뭘소리하노. 형님은?

영천 와

안강 염색은 와 안했노. 춘자가 온김에 다하지

영천 넘사스럽구로

안강 (영천의 머리를 살피며) 희안한게... 뒷머리끝에 봐바  
라

영천 내가 어찌보노

안강 (거울을 주며) 보소

영천 뒤를 어찌보노

안강 맞네

영천 그만하고 버스나 오나 보라. 니 말 듣고 머리 했다가.  
너무 뽀글한거 아이가

안강 그래야 오래가지

영천 오래간다고...

안강 그래도 춘자가 머리는 잘해. 어릴 때 그리 속 썩이더  
만. 자 엄마가 얼마나 속 탔노. 요새는 야가 제일 잘한  
다. (영천의 눈치를 보며)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  
다.

영천 (혼자말) 맞다.

안강 내 말듣고 머리 잘했제. 대구장 갈라 카면 이정도는  
해줘야지. 전에 군위형님도 대구장가기 전에 머리 했다

아이가. 그 때 얼마나 이뻐노.

영천 (머리를 만지며) 나도 이쁘나.

안강 이쁘다. 대구장가면 총각들이 커피한잔 하자꼬 쫓아다니겠다.

영천 나도 소식적 이뻐다. 동네 총각들이 얼마나 힐끗힐끗 쳐다 봤다고...

안강 (웃으며) 형님, 요새 말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 나누니 얼마나 좋노

영천 내가 말이 많아 졌다고

안강 그리 무뚝뚝 하던 사람이, 요새는 달라진 것 같다. 군 위형님 대구장 가시고 부쩍 느거 같다.

영천 그런가

안강 내가 맞으면 맞는거지 뭐그리 의심하노. 그라마 이제 해보까

영천 또 뭐할라고

안강 머리했는 기념으로... 이쁠 때 최고로 이쁠 때 할라고

안강 유모차를 이끌고 도로를 건너가 유모차에 있는 흰옷을 멀리 던진다.

안강 (소리치며) 고시래, 고시래

트럭 지나간다(큰 소리).

영천 (놀라며) 뭐하노 야야

안강 (돌아오며) 내도 형님 맨키로 고시래 했다.

영천 사고 나면 으짖라꼬

안강 사고나마

영천 ...

안강 안난다. 내가 두 형님 두고 어에 간다말이고, 두 할마  
씨 걱정되가 내가 먼저 어에 가노

영천 말은 잘한다. 난 거는 순서 있어도, 간 거는 순서 없  
다.

안강 와 안 물어 보노

영천 뭐 말이고

안강 고시래 한거

영천 땅한테 줄게 뭐가 있겠제

안강 오늘 나 이쁘나

영천 이쁘다.

안강 (جل레질 하며) 형님은 옛날부터 궁금증이 없어. 사람이  
뭘 하마, 뭘 했냐고 묻고 그래야지 서로 서로 말도 하  
는거고...

영천 억수로 궁금해가 몬 물어 봤다.

안강 우리 아... 옥이 베넷저고리 그거 고시래 했다.

영천 와

안강 어제 형님이 내 한테 어떻게 했소

영천 어제

안강 내 손을 꼭 잡아주는데, 그게 억수로 좋았소

영천 그렇나

안강 밤에 가만이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기라

영천 ...

안강 옥이 낳고 얼마 안되는 날이라. 누워있는데... 누가 내

젓꼭지를 살살 만지는게 아니겠소.

영천 어느 쪽?

안강 오른쪽

영천 젖은 와 내놓고 자노.

안강 아따 흐름 끊긴다. 있어보소. 난 속으로 이 양반이 미  
쳤나 싶었제. 고거 달린거는 고거 밖에 생각 안한다  
고...

영천 남자들은 밥 손칼 들 힘만있으면 그 생각밖에 없다.

안강 그기아이고, 눈을 뚫는데. 우리 육이가 내 젓꼭지를 물  
고 젖을 빨고 있대요. 젖먹이다 잠이들었는 것 같은  
데...

영천 ...

안강 다른거는 생각이 안나는데, 고거는 생각이나, 우리 육  
이 젓빠는거는, 모습도 생각나고 느낌도 생각나고...  
희안하게

영천 아 낳은 애미가 그거를 어예잇노

안강 새벽내내 베넛저고리 보다가... 오늘 내가 참말고 이쁜  
거 같아 들고나왔소...

영천 귀한거를... 어데 날라가마 어알라꼬

안강 그라마 더 좋고

영천 (사이) 그라마, (저고리 방향으로) 멀리 멀리 가라

안강 희안한게... 슬플지 알았는데, 아이다 싶었제, 전에 형  
님 고시래 했을 때 형님 얼굴이 웬지 모르게 편안해  
보이더라고

영천 (안강의 얼굴을 만지며) 오늘 참말로 이쁘네...

안강 맞나

영천 맞다. 고시래 하이 좋나  
안강 모르겠다. 그래도 맴은 편해진 것 같다.  
영천 그라마 됐다.  
안강 형님은 안 궁금해요  
영천 야가 뭐또  
안강 군위형님은 고시래 멀로 하까  
일동 (웃으며) 걸레다.

서서히 암전.

과거.  
바위와 그 주변 조명 밝아진다. 군위는 바위에 앉아 걸레질하고 있다.

군위 잡것들... 잡것들...

영천은 힘없이 오며 바위에 앉는다. 앉자마자 걸레질을 세차게 한다.

군위 갔다왔나. 어쩔더노

영천은 군위를 한 번 보고, 계속 걸레질이다.

군위 잡것들...

한참 후 안강이 울면서 온다.



군위 (안강을 보며) 서서 뭐하노

안강은 살며시 걸레질 한다.

군위 잡것들... 니 잘못 아이다. 니가 잘못된게 뭐있노

안강 그래도

군위 니는 개안타. 아 먼저 간게 와 니 잘못이고. 지 명이지

영천 (걸레질하다가 침을 뱉으며) 퇴

군위 잘한다. (침을 뱉으며) 퇴

안강은 군위, 영천을 보다가

안강 (침을 뱉으며) 퇴

영천 오줌도 씨게 누뿌라

안강 참말로... 뭐할라꼬... 그라까...

안강은 살며시 뒤로 가서 오줌을 본다.

영천 잘한다. 소리 좋다. 더 힘내서 사발팔방 텅가쁘라.

모두들 웃는다. 서서히 암전되며, 셋의 노래소리 들린다.

현재.

무대 밝아진다. 영천, 안강은 새 모자, 새 신발을 신고 소파에 앉아있다. 어느 사이 군위가 가운데 앉아있다.

영천 버스오는거 맞나

군위 (고개를 끄덕인다.)

안강 온다 안그르나

영천 그래 군위형님은 잘갔다왔나

안강 참 언가이 말 하겠다.

영천 형님 말 들어본지도 오래된 것 같다

안강 목소리 참 좋았는데...

영천 말을 했던가

안강 안들어 봤는가?

영천 (군위를 보며) 들어본거 같은데... 기억이안난다.

안강 (영천을 보며) 형님 부를 때 어떻게 불렀노

사이

안강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노

사이

영천 이번참에 오는 기 대구장 가는거 맞제

군위 (끄덕인다.)

안강 참말로 궁금하네. 대구장 대구장 말만들었지 어떻게  
생긴지 모르이. 그게 어데있노

영천 여서 보마, 저짜 서쪽에 있다 안카나

안강 해 지는쪽. 좋을란가

영천 군위 형님이 좋다고 안하드나

안강 그랬나

영천 (군위를 보며) 형님 검은 머리 나셨네. 대구장이 좋긴 좋은 갑다.

안강 (거울을 보며) 나도 찌매 생긴 것 같네... 요새 머리가 간질간질한게 무슨일인가 보이 검은 머리 날라고 그랬 나보네

영천 (거울을 뺏으며) 나도 보자. 나는 없구마

안강 내가 전에 있다 안했어요, 뒤쪽에.

영천 대구장 그게 뭐라고 검은 머리가 다 생기네

안강 말만들어도 좋다.

영천 버스오나

안강 아직

영천 와이래 안오노

안강 뭐그래 급하다고 서두르노

영천 오늘 따라 유난히 날이 좋으이, 빨리 가고 싶어서 칸다.

안강 그러고 보이 날이 참 좋다. 별도 좋고. 신발도 좋고 모자도 좋고

영천 (군위를 보며) 우리 이쁘나. 좋네. 대구장 가는 기분난다.

안강 대구장은 이정도 해 줘야지. 곱다.

영천 이래 셋이 같이 가이 좋다.

안강 ...

영천 언제 같이 갈 수 있었나

안강 내는 안강에서 오고

영천 내는 영천서 오고, 형님은 군위서 오고

안강 이래 셋이 같이 가이 좋다.

버스 보인다(무대 오른쪽 파란색 조명이 조금 보인다).

영천 인자오는 것 같다

안강 얼마나 기다렸노

영천 기다린거 맞나

안강 거참... 물어보이...

영천 ...

안강 모르겠네

영천 모르겠다 어느 샌가 와 있네.

안강 오늘은 아침을 꼭 먹고 싶더라

영천 내가 머라 켜노. 아침 먹고 여기 있으마, 온다 했잖아.

(군위를 보며) 맞제

군위 (고개를 끄덕인다)

안강 형님은 아침을 먹었는가?

영천 내는 일찍 묵었지. 새벽부터 어미소가 계속 나를 찾는  
기라. 밥챙기 주고, 그 참에 나도 묵었지

안강 아침나절 소변 볼려고, 나가는데. 저 멀리서 애미소 하  
고 애기소하고 풀뜯고 있대. 형님이 아침 드신 것 같아  
급하게 왔제

영천 하도 울어싸이 풀어준다. 거가 있었나

안강 거기가 풀뜯기 좋지. 별도 잘들고... 하늘보기도 좋다.

영천 거기가 좋제... 바람 잘 불고, 별이 좋은데가 좋다

안강 돈은 챙겼나

영천 40만원

안강 아따 부럽다.

영천 만난거 먹고, 좋은거 보자

안강 (웃으며) 형님이 많이 벌었으이 나보다 짜매 더 하소.  
(삶은 계란과 사이다를 보여주며) 이것도 있소. 여행할  
때는 이게 최고다.

영천 다된거 같다...

안강 얼마나 가야 되는 공. 오줌마려부면 어야노.

영천 내가 버스 꼭 붙잡고 있으꾸마 (안강의 손을 잡으며)  
꼭

버스 소파 바로 앞에 멈춘다. (조금 어두워지며, 무대 오른쪽에  
파란색 조명 밝아진다.)

안강 (군위를 보며) 왔나..

영천 그렇네...

안강 (군위를 보며) 이거 타면 되는기제

군위 ...

안강 와 대답이 없노. (영천에게) 이거 타면 되는기제

영천 (멍하게) 그래... 대구장 가는 버스 맞다. 왔네...

안강 (군위와 영천의 손을 잡으며) 타자

군위는 안강의 손을 살며시 놓는다.

안강 와

군위는 영천을 한참 본다.

**영천** 알겠다. 무슨 말인지 내도 안다.

안강은 돌을 보며 어리둥절 한다.

**안강** 무슨 분위기고, 돌이 뭐하노. 내 빼고 갈라꼬.

**영천** 안강아

**안강** 와.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영천에게) 형님도 알잖아. 소파도 닦고, 고시래도 하고, 머리도 하고, (사이다와 계란을 들며) 이것도 싸웠는데. 알잖아 형님. 내가 형님들 하고 꼭 같이 갈라꼬, 얼마나 기다렸는데. 와

**영천** 안강아

**안강** 내 혼자 있으라고, 혼자 뭐하노, 형님들하고 가고 싶다. 우리가 같이 걸레질한게 한평생이 넘는데... 혼자 있으라꼬. 내 빼고 둘이서만 좋은데 갈라꼬

**군위** (안강의 손을 잡으며) 안강아 니는 쪼매만 있어라. 쪼매만 있으마, 영천하고 꼭 다시 오꾸마. 그 때 같이 가자.

사이

**안강** 알겠다. 오늘은 형님들... 아니 언니들이 먼저가라. 난 기다리고 있으께. (걸레를 보며) 이거 닦으면서 기다리고 있으께. (걸레를 만지며) 이 걸레가 이렇게 슬픈지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다. 고마가소.

**영천** 아 들은...

**안강** 걱정마소. 때되면 저거들이 돌아오겠지. 내가 여물 많이 주꾸마. 형님 오실 때 까지... (계란, 사이다를 주며) 가시는 길 체 하지 않게 드시소. 소금 꼭 찍어먹고. 좋은거 보고 담에 내 갈 때 좋은거 보여 주소... 낼은 김치나 담가야 겠다. (군위를 보며) 영천언니는 촌에서 나가 촌에서 평생 지내. 대구장가면 길 잃지 않게 단도리 잘하소. 좋은거 많이 보여 주고...

군위, 영천 미소로 화답한다.

**안강** 형님. (주저하며) 거는... 걸레..... 없지요?

**군위** 맞다. 없다. 그런거 없어도 된다.

**안강** (급하게 영천을 잡으며) 형님 (빨간색 속옷을 주며) 예쁜거...

**영천** 곱다

**군위** (안강의 손을 잡으며) 곱다. 울지마라. 고운데 울면되나

**안강** 내 대구장 갈 때, 꼭 같이 가는거 맞제... 약속했데이... 꼭 같이 가야된다... 꼭 기다린다...

셋 꼭 끌어안는다.

군위, 영천 버스에 오른다. 버스 출발한다.

암전.

사이

무대 밝아진다.

영천의 염주와 속옷은 나무化 되어있다.

안강은 가만히 앉아 소파를 만지고 있다.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걸레질을 한다.

**안강** 새벽에 개새끼들이 그리 짖어 쏘디만, 날이 춥어질라  
그랬나. 오늘은 국시나 해먹자. 김치도 담그고... 여물  
도 맛난거 해야겠다. (걸레를 보며) 하도 빨아가 하얗  
게 되겠다. 이게 다 낡으면, 형님들이 오실란가...

사이

**안강** 춘삼이도 올란가...

멀리서 소울음소리 들린다.

**안강** (일어서며) 간다. 배고프나. 오늘은 맛난거 있다. 같이  
먹자. 밥 얼릉먹고 별좋은 뒷산에 같이 가자.

퇴장.

끝.